

동곡 기룡마을 '옛 추억' 고향의 향기 2025 추석맞이 '우리 동네 콩쿨대회'

광주 광산구 동곡동 기룡마을에서는 2025년 추석을 맞아 「2025 추석맞이 우리 동네 콩쿨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광산구 새마을회(회장 안덕홍)가 주최하고 동곡동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주관한 동곡동협의회 신일용회장은 2023년 1회에 이어 2회 열린 추억의 콩쿨대회를 주관해 마을 주민들과 귀성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며, 내년 우리 동네 콩쿨대회는 유림마을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는 10월 5일 오후 6시30분에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동곡동 주민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무대는 음향기와 광전매일신문에서 제공한 조명·영상 장비로 화려하게 꾸며졌고, 1부 행사 사회는 광산구새마을회 윤성미사무국장, 2부는 동곡동새마을협의회 박상표총무가 진행했으며, 초청가수 심삿대 민성아·보고싶은어머



광주광역시 광산구새마을회 2025 추석맞이 콩쿨대회 수상자

니 송영신·김영애가수와 지역 가수 박치숙 씨, 그리고 아마추어 지역 주민 25명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컬러 TV, 지역 특산물 등 현대적이고 실용성 높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옛날 콩쿨대회와 차별화된 풍성한 경품이 눈길을 끌었다.

행사를 주관한 동곡동 새마을협의회 유영권 준비위원장은 이 콩쿨대회를 고

건전한 생활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동네 콩쿨대회를 동곡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사는 농어촌공사 광주지사·평동농협·광명바이오산업·광전매일신문·지역 청년회·지역 주민·향토 기업인들과 새마을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봉사 참여로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귀성객이 함께 옛 추억을 나누고 화합하는 문화 행사로, 새마을회의 주도 아래 현대적인 방식으로 부활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으로 부녀회는 막걸리 판매 수익금으로 본초마을 경로당에 온정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콩쿨대회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동곡동 주민 모두가 옛 추억을 함께 나누고 화합하는 뜻깊은 축제이자, 새마을회의 주도 아래 시대에 맞는 '르네상스의 개념' 새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결속과 추석 명절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뜻한 정과 웃음이 가득했던 이번 행사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며 지역에 좋은 추억과 행복을 선물해 주길 기대해 본다.

/오덕근 기자



보성군 조성면 희망드림협의회, 경로당 클린방역서비스 추진 "아파~ 우리 집보다 깨끗해브리!" 47개 경로당 위생 관리 강화

보성군은 오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조성면 47개 경로당에서 지역 내 4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클린방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 이용 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다.

특히, 조성면희망드림협의회(회장 전병현)와 조성면의용소방대(대장 김권주)가 협업해 추진하며, 행정과 지역 단체가 힘을 모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현장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자들은 각 경로당의 내부 청소, 해충방제, 소독 등 위생 통합방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이용이 잦은 휴게공간, 주방,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위생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환경을 마련한다.

조성면희망드림협의회 전병현 회장은 "이번 방역·정결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정인숙 조성면장은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윤기 기자

강진군민장학재단,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김진환 (주)레몬 대표, 군동면지역발전협의회 장학금 기탁

강진군민장학재단이 지난 1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장학재단 이사장,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 앞서 김진환 (주)레몬 대표가 3백만 원, 군동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주)레몬은 건축공사 철거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주로 하는 판매 건설업체로, 김진환 대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3천4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 하며 지역사회

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군동면지역발전협의회는 올해 금곡사 벚꽃축제 부스 수익금 1백만 원을 회원들과 함께 장학금으로 기탁했으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1천4백만 원의 장학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안)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올해 하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은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최종 99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성적 우수 분야가 가장 많은 47명, 복지 분야 10명, 다자녀 분야 26명, 다문화 가정 분야 5명, 한부모·가정위탁 분야 3명, 귀농인 자녀 분야 1명, 특기자 분야 3명, 장한 학생 4명 등으로 전체 지원 금액은 1억 500만 원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이(齒)야호!" 함평군,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구강보건사업 추진 성과와 정량 지표 달성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함평군은 함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 보건 정책과 취약계층 대상 실천형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춘 구강 보건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시군구 부문 25개 우수기관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함평군과 완도군이 선정됐다. 특히, 군은 학교와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부터 교육까지 유기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밖에도 시설 내 불소도포, 구강 건강 수첩 배부,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등 군민 참여형 예방 사업을 운영해 자발적 실천 기반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아동 529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잇솔질 교육을 제공하며 아동의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했으며, 영화학교 등 15개 학교를 방문해 학교 구강보건실과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하며 학령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곡성군4-H연합회, 굿은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귀성객 맞이

곡성군4-H연합회(회장 권영택)가 지난 3일 곡성IC 일원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환영행사를 열고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4-H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굿은 날씨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귀성객을 환영했다. 회원들은 지역 농산물과 군정 홍보자료를 나누며 고향의 정을 전했다. 비로 인해 예정됐던 떡메치기 체험 대신 인절미와 다과를 나누며 명

절 분위기를 이어갔다. 또한 회원들은 귀성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교통 안내를 지원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는 도로 주변을 정리하며 깨끗한 귀성길 조성에도 힘썼다.

권영택 곡성군4-H연합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군4-H연합회는 2004년부터 명절마다 귀성객 환영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농산물 홍보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등 지역 사랑 실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곡성/이경수 기자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제25회 곡성심청 어린이 대축제

2025. 10. 23. - 26. 곡성심진강기차마을